

진각종이 2016년 여름, 울릉도에서 개최한 회당문화축제. 현대불교 자료사진

진각종 회당축제, 3년 만에 울릉도로

7월 29~31일 진호국가불사 · 독도아리랑 주제

진각종 종조 회당 손규상 대종사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국가와 불교발전의 의미를 담은 회당문화축제가 3년 만에 울릉도에서 열린다.

진각종(통리원장 회성)은 7월 29~31일 진각종 회당 대종사 탄생성지인 울릉도에서 '2019회당문화축제'를 개최한다. 회당문화축제는 초창기부터 매년 여름 울릉도에서 개최해왔으나 지난 2년간은 행사장소를 서울과 경주로 변경한 바 있다. 진각종이 회당문화축제 장소를 다시 울릉도로 변경한 배경에는 김병수 울릉군수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9회당문화축제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진호국가불사'와 '독도아리랑'을 주제로 진행된다. 행사기간에는 △특별 문화체험행사 △독도아리랑 콘서트 △울릉도 고지도전 · 독도사진전 등이 펼쳐진다.

문화체험행사는 참가자들이 청사초롱등에 직접 그림을 그려 등을 달고 점등하는 행사로서 울릉도의 여름밤을 환희로운 빛으로 수놓는다. 또한 회당문화축제의 백미인 독도아리랑 콘서트는 울릉도 선원심인당 내 선원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독도팝스오케스트라'의 공연, 울릉도에서 구전으로 이어지는 '선경가'를 선보이는 봉은국악합주단의 무대 등이 펼쳐진다. 또한 이 시대 소리꾼으로 손꼽히는 장사익 선생이 콘서트의 대미를 장식한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일부 종무원 징계, 노조 무관"

민주노총 조계종지부 논란에 6월 7일 입장 밝혀

조계종 총무원이 최근 이뤄진 일부 종무원 징계에 대해 노동조합과는 무관한 종무원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산하 조계종지부 소속 종무원들이 '부당징계'를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최근 일부 일반직 종무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객관적 사실 확인과 내부 절차 없이 기자회견을 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함으로써 종단 위상을 실추시키고 종헌종법을 위반했다"며 "종단은 해당 종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3차례에 걸쳐 소명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는 등 종단의 정당한 지시와 명령에 불복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홍보를 통해 본인들의 일방적 주장만 되풀이하며 노조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6월 7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이어 "본 사안은 노조와 무관한 종무원의 종법 및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다. 종단은 노조 또는 노조원에 대해 어떠한 탄압도 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오히려 조계종지부는 현 총무원장스님을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등 종단 대표자에 대한 사회기관 제소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계종은 조계종지부에 정치적 주장으로 종단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을 것과 종무수행에 충실히 임할 것을 당부했다.

조계종은 "모든 종도들과 불자님, 국민여러분께 일부 종무원들의 행위로 일어난 사안에 유감의 뜻을 전한다. 종교단체로서 종헌종법에 의해 운영되는 종단 특수성과 자율성을 이해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계종노조 측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자승 스님 고발 관련 자료는 정상적으로 취득한 자료이며, 객관적인 사실 확인 후 정당한 고발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총무원은 조계종노조에 대한 탄압과 조합원 중징계를 철회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호섭 기자

선거갈등 태고종, 양측 입장차 '평행선'

편백운 스님, 종단 각급기관장 연석회의 개최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제26대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에 대한 중앙종회와 원로회의 불신임 결정 이후 내홍을 거듭하고 있는 태고종이 양쪽으로 분열돼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서로 구종(求宗)이라는 대의적인 명분 아래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물밑 작업을 하면서 제 갈 길 바쁜 모양새다.

편백운 스님은 6월 11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태고종 종단 각급기관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편백운 스님 측에 따르면 연석회의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월봉 스님, 중앙교육원장 보경 스님, 법규위원장 서봉 스님, 고시위원장 원명 스님, 대구경북 · 서울강북 · 서울북부 종무원장 등 종단 중진스님 60여 명이 참석했다.

편백운 스님은 이 자리서 종회의장 도광 스님과 종회의원들이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되고, 〈한국불교신문〉 명예훼손 기사 게재 금지 가처분도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 집행부는 제27대 총무원장선거가 집행부와 종회 간 갈등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기회가 돼야 한다. 전 종도가 참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민주적인 직선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편백운 스님은 "종단 위상 제고와 종도들의 전법활동을 위한 새로운 태고종을 위해서라면 총무원장 자리에만 연연하지 않겠다"면서 "선관위는 보궐선거를 중단하고 종회는 불신임을 철회해 총무원장 선거법을 개정, 직선제를 실시한다면 총무원장직을 내려놓고

선거 진행 중 직선제 지지
"총무원장직 연연하지 않아"
종단수습위원회 구성 제안
3.14 종회 무효 주장 여전

다수의 후보자들과 함께하는 선거에 재신임을 묻는 용단을 내릴 수 있다"고 선언했다.

직선제와 관련해서는 선관위원장 월봉 스님도 편백운 스님과 뜻을 같이 했다. 월봉 스님은 2017년 종회서 선거법을 직선제로 개정하려 했으나 부결됐을 당시 직선제안을 제안한 인물이기도 하다.

월봉 스님은 "전 종도가 참여하는 총무원장 직선제를 위한 가부(可否) 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하면서 "총무원장



태고종 편백운 스님을 비롯한 종단 일부 중진스님들이 6월 11일 AW컨벤션센터에서 '각급기관장 연석회의'를 열고 총무원장 직선제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은 민주적인 직선제로 선출하는 게 본인의 소신"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종단 사태 수습을 위해 총무원 · 중앙종회 · 호법원 · 원로회의 등 대표 2인이 참여하는 종단수습위원회(가칭)를 구성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제26대 편백운 집행부가 주도해 종단안정을 이루도록 지지 △검찰 결정 존중과 고소인의 참회 △3.14 종회와 3.20 원로회의 결정 원천무효 △총무원장 직무대행 전성오 스님 불인정 △총무원장 보궐선거 불인정 △단독후보 호명 스님 후보 사퇴 △구종대책위원회 구성할 것 등을 결의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의에 중립을 지켜야 하는 중앙선관위원장이 행사에 참석했다는 점에서 종단 내 분위기는 어수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월봉 스님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직선제에 대한 개인의 소신을 밝히기 위해 참석했을 뿐 결의사항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편백운 스님이 개최한 연석회의에 중앙종회는 크게 개의치 않는 반응이다. 중앙종회 관계자는 "참석자들이 친(親) 편백운 집행부 인사들이다. 종무원장도 극히 일부만 참석했다. 무혐의 관련 사건도 검찰이 재기수사 중"이라며 "직선제를 운운하며 중앙선관위원장을 이용해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태고종 중앙선관위는 6월 12일 선거인단에 대한 자격심사를 실시, 중앙종회의원과 교구종무원장 등 총 126명의 선거인단을 확정했다. 또한 호명 스님이 총무원장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관계로, 무투표 당선을 선거인단에 안내한 뒤 선거일인 27일 후보자에게 당선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구인사 개산, 소백산 연화성지 발전"

구인사 개산 74주년 법요
사부대중 1000여 명 참석

천태종 스님과 불자들이 총본산 단양 구인사 개산의 의미를 되새기고, 구인사를 개산한 상월원각조사의 정신을 본받아 중생구제 원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을 다짐했다.

천태종(총무원장 문덕)은 6월 7일 단양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구인사 개산 7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종정 도용 스님을 비롯한 종단 스님들과 류한우 단양군수 등 1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도용 스님은 "일체중생 구제의 자비 원력이 소백산에 빛나 정각의 도량이 열렸으니 한국불교의 위대한 새날이 밝았어라. 백년대계의 큰 뜻을 어찌 헤아릴 수 있으랴. 한 해 한 해 높아가는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개산 74주년을 맞아 봉행된 법요식에는 종정 도용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공덕의 탑을 보니 성현의 가르침 그 참뜻이 더해가는구나. 제행은 무상이나 정법은 불변이라. 하얀 연꽃 피워내는 일승의 도리 참된 길을 교시하신 그 길을 따라 대중들이여, 깊은 믿음과 지극한 정성을 다하여 개산의 거룩한 뜻을 시현하라"고 법어를 내렸다.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상월원각대조사께서는 이 자리에 초가삼간을 지으시고 '억조창생 구제중생 구인사'라 명명하시어 1945년 단오일에 산문을 여셨다. 그로부터 74년이 지난 오늘, 소백의 연화성지는 수수만만의 중생이 귀의하는 대도량이 되었고, 개인의 복락을 증명하고 오탁악세를 제도하는 위대한 가르침을 구하는 정진의 열기도 가득하다"고 구인사 개산의 의미를 되새겼다.

문덕 스님은 이어 "오늘 우리는 제불보살님의 가피를 소리 높여 찬탄하고, 상월원각대조사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억조창생 구제중생의 원력을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다짐한 후 "천태불자들의 정진 공덕이 원만각행으로 회향될 때 이 도량의 광채가 하늘을 덮을 것이요, 오탁악세를 연화정토로 바꾸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한우 단양군수는 축사에서 "구인사는 천태종 종도들의 근본 수행도량이자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정신적 귀의처"라며 "단양이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맞은 것도 구인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구인사가 단양군에 있어서 자랑스럽게 여긴다.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사찰이 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김주일 기자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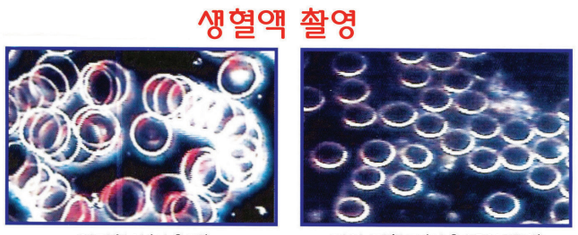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항균(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8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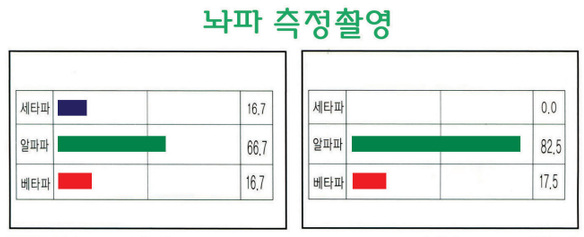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탈모예방 발모촉진



사용전 사용6개월 후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BLOOD MATE®의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은어깨, 허리통증, 방사능 제거(세슘) 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 (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검버섯 제거 현상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